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일본의 경제보복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큰 이슈가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강경한 반일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도 경제전쟁을 고조시키고 재미를 본 듯하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반 국가로의 개헌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를 중의원에서 이미 확보했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를 넘었다. 공명당과의 연합을 해도 개헌선 3분의 2에서 4석이 모자란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규제를 지속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사사건건 대립하고 부딪치지만 대일문제에서만은 오랜만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만났다. 황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서 열린 5당 대표회담이었다.

정치 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든 일

이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 형식과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그 문제와 당사자, 내용과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여 결정된다. 정치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형식과 명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만났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자주 만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주요한 국정과제를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야 할 국가 지도자들이 일단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보내는 메시지는 크다.

공동 기자회견도 아니고, 공동 성명이나 공동 결의문도 아니며, 다소 강도(強度)가 떨어진 공동 발표문을 청와대 대변인과 각 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과 5당은 단결해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 7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풀루오린 폴리머인, 예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 3개 부품의 한국 수출을 포

괄수출 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인 수출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이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배상하지는 한국정부의 제안도 거부하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1965년 한일협정이 행으로 이미 피해자 개인의 피해배상까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韓日) 경제전쟁으로 비화한 이번 사태는 단순하지도 않고,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단순한 경제상까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韓日) 경제전쟁으로 비화한 이번 사태는 단순하지도 않고,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단순한 경제상까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와의 대결과 전쟁은 우선 국익과 국가 위신, 애국심과 국민 자존심 등이 작용하여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문제의 전면에 떠올라서 다른 요소들을 압도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면 친일(親日)이나 반민족적인 괴물로 비추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인 질곡(桎梏)과 애증(愛憎)이 겹쳐지고 변주(變奏)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복잡해진다. 당연히 그 해법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양국 모두 국민감정까지 자극하는 신동분자나 신동세력도 있을 수 있다. 서울에서도 자동차로 일본 대사관으로 돌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부산에서는 청년들이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서 항의하기도 했다. '노노재팬'이라는 일본 상품 불매(不買)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 36년 식민지배 등의 악행을 한국에 저지른 나라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우방국가다. 우리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가까운 이웃이다. 대결과 배척이 아니고, 협력과 경쟁을 해야 할 친구 국가다. 국외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수천 년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하고 더욱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하리라고 믿는다.

社說

휴가철 범죄예방 철저해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마지막주가 침입범죄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은 18일 여름휴가철 침입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는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넷째주부터 8월 둘째주까지 최근 5년간(2014~2018년)의 침입범죄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중·고등학교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7월 넷째주(7월 21일~7월 27일)가 휴가철 전체 침입범죄 건수의 29%를 차지해 범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나타났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휴가철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요일에 빈집털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침입 시간대를 살펴보면 심야 시간대(00~06시) 66%, 야간 시간대(18~24시) 18%, 아침 시간대(06~12시) 9%, 오후 시간대(12~18시) 7% 순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침입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이 많아지는 휴가철인 만큼 절도범이 빈집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적이 드물어지는 심야시간에 침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시설별 침입범죄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59%로 다세대주택(7%) > 아파트(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독주택이 창문, 베란다 등 침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침입경로를 살펴보면 창문이 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돼 휴가 출발 전 작은 창문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창문이 많고 2층 이상일 경우 창문 점검에 소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시설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은 주로 귀금속(66%), 현금(20%)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는 빈집털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중품, 현금 등은 금고에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장소로 옮기는 등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21 (2인)

호남신문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요령

평소에 제대로 운행되던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고장이 발생해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승강기는 지난해 말 기준 65만대에 달한다. 모든 승강기는 고유번호로 관리가 되고 있다. 해당 기술적인 한계를 비롯하여 이용자 과실 등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사고유형별로 이용자 과실이 전체 발생건수의 50%가 넘었고 관리부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 과실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승강기가 어떤 원인으로 갑자기 정지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강기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한 행동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승강기가 정지했을 때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뛰는 등 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은 더 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 승강기 정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출입문에 기대지 말고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내리고 탈 때는 승강기와 건물 바닥이 같은 높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내리고 타이한다.

넷째 승강기에 갇혀 있을 때 질식할 우려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승강기에는 공기배출, 흡입장치가 있어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어 질식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끝으로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승강기 사고발생시 무리한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119나 유지보수 관리업체 직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행동하여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진민호 / 회소소빙서 119안전센터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